

코로나 전쟁터된 복지부장관 청문회... “백신 만능론” vs “남탓”

국민의힘 강기훈 “K-방역 우수인가 자괴감”

민주당 김원이 “野, 국민은 안정성 확보 원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권 후보자 청문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방역 대응과 백신 수급 계획에 질의 초점을 맞추며 책임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백신 확보 실패론을 전면에 내세워 정부의 안정적인 대응을 질타한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백신만능론’으로 치부하며 공세를 차단했다. 오히려 야당과 언론이 과도한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K-방역 우수성을 부각했다.

야당 간사인 강기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나름대로 백신 구매 실패에 대한 부분을 질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무총리도 7월달 100여명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보고 여유 있게 생각해 백신 구매 활동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후보

자의 K-방역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정치적 눈치를 보고 발언을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신속자가진단 키트를 빨리 확대해 코로나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권 후보자는 “신속자진단 키트는 자가진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에 나와 있지 않고 허가가 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당 김미에 의원이 “코로나 검사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무증상자 등이 늘어나고 있다. 누가 감염되지 모른 채 다니다가 계속 전파하는 위험이 있다”며 “자가진단키트의 신속한 도입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백신을 최대 4400만명분 확보했는데 그 내용을 15년 변호사 생활을 한 저도 모르겠다. 구매 계약서 체결을 추진 예정 이런 것인데 ‘확보’의 의미는 확실히 보증하거나 소유한 것이 아니냐”며 “비교적 적 총리는 제대로 솔직하게 말했

다. 정부는 아스테라제네카 백신이 내년 1분기 중 언제 공급될지 약속돼 있지 않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낫다”고 따졌다.

서정숙 의원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가 창궐할 때 38명 사망을 갖고 국민은 정부 방역 실패의 피해자고, 정부와 대통령이 잘못된 방역의 원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사망자는 700여명에 이르고 있다”며 “현 정부는 조금만 잘못해도 야당과 국민 탓, 여론 탓이다. 언제까지 남탓만 할 것인지 걱정스럽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이 코로나 백신을 정쟁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백신은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방역과 백신을 지나치게 정쟁 소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려면 방역과 백신, 치료제 삼위일체가 필요하다”며 “일본은 확진자가 20만명, 사망자는 2900명이고 한국은 확진자 5만명에 사망자는 698명이다. 비슷한 인구 수준의 20개국을 비교해도 대한민국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야당과 언론 보도가 방역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백신이나 재난지원금 스케줄을 내년 보궐선거에 맞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정쟁을 통해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불필요한 음모론은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야당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백신만능론’”이라며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 국민 74%는 안전성이 있는 경우에만 맞겠다고 한다. 정부가 지금처럼 방역을 이어가며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고, 물량 확보해달라는 것을 국민이 원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에 대해 “미국, 영국, 유럽 등은 백신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우리는 방역 시스템이 충분히 유효하고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K-방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며 “백신 도입시기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에 권 후보자는 “지금 백신을 접종해도 효과가 60%정도로 낮고, 효과가 나오려면 겨울이 끝나는 때다. 우리나라도 다음 유행을 막기 위해 백신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면 4차 유행이 왔을 때 막을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코로나 백신 도입시기와 물량 등을 질의하기 위해 관

련 전문가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백신을 어떻게 하면 조달할 수 있을까 소상히 기회를 줘서 안심하도록 만들어 주자고 했는데 증인 채택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野 “문준용, ‘착각 말라’? 참 싸가지...국민 상대로 샷대질”

“정부예산 별 효과 없는 곳에 흥청망청 퍼줘”

문준용
1시간 · 1

코로나 시국에 전시회를 열지 말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우선 방역 지침은 준수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구요. 미술 전시회가 무슨 파티 같은 곳이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전시회는 작품을 파는 곳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이라 사람들이 보러 오지를 않으니 팔릴 리가 없지요. 방역 지침 때문에 몇명 이상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왜 전시회를 열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라도 해야겠으니 피눈물을 흘리며 혹여 한 점이라도 팔아보려는 겁니다. 비디오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 놓으면 다음 에라도 팔리겠지 하는 겁니다.

이 시국에 전시회 하지 말라는 건, 예술가들 모두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란 겁니까?

아무도 초대하지도 못했어요. 여기저기 계약해 놓아서 취소할 수도 없어요. 만약 3단계 시행되면 바로 문 닫을 각오 하고 하는 겁니다.

1.3천 댓글 50개 공유 55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코로나19 지원금 수령 반박글. 문씨는 “작가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라고 반박했다. (사진=문준용씨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지원금 1400만원이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아들은 22일 “참 싸가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서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정부예산의 상당한 부분이 문화예술계에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상 별 효과도 없는 곳에 흥청망청 퍼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분이 나라의 돈을 받아야 할만큼 생활이 어렵고 힘든 분인가”라며 “그런데 ‘착각’ 말라니. 국민을 상대로 샷대질하는 오만방자한 모습이 가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

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400만원 수용의 적절성을 지적하는 언론과 국민에 당당한 모습에 기가 찬다”고 말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아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할 지경이면 가난한 예술인들은 이미 피눈물도 다 말라 질망에 빠져 있을 지경”이라며 “대통령 아들이 가난한 예술인들의 몫을 가로채고 그들을 좌절시켰으면 즉시 사과하고 지원금을 반환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무슨 낮은 뉘그러고 황당한 변명을 늘어 놓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문화재단이 문 씨의 지원금 심사 점수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서울시정 개혁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공적 비용이 사용되는 심사는 일정한 절차와 기준을 정해 결과를 공지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며 “서울문화재단도 개혁해서 점수를 숨길 일 없도록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스

이재명 “경제부총리는 공간 지킴이 아니다” 홍남기 저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경제부총리 지리는 공간지킴이가 아니라 경제정책의 설계자여야 한다고 홍남기 부총리를 저격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일 반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2% 수준으로 42개 주요국가 가운데 4번째로 작다고 밝혔다. 국제통 화기금(IMF) 역시 세계경제정상화 관 찰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초재정수지 적 자는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중 2번째로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선진국 재정적자 평균은 GDP의 13.1%. 미국, 영국, 일본은 이 보다 크다”며 “이는 전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전쟁



시기에 버금가는 막대한 수준의 재정을 쏟아붓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님을 비롯한 기재부에 묻고 싶다. 뿌듯한가”라고 비꼬았다.

이 지사는 “부디 고성장시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재정정책에도 융·복합적 사고를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